



자동차 업체들, 애플이나 구글과 데이터 공유에 소극적

-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탑재 통합 시스템과 관련하여 애플이나 구글과 데이터 공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
 -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시스템을 통합하고 다양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는 애플의 ‘카플레이(CarPlay)’와 구글의 ‘안드로이드 오토(Android Auto)’가 있으며, 다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제휴 중
 - 그러나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자동차 업체들이 핸들과 브레이크, 액셀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휘발유가 떨어질 때까지의 주행거리 등 여러 유형의 정보들을 애플과 구글에 전달하지 않는다고 함
 - 포드 자동차의 한 임원은 “우리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관리함으로써 가치 창출 능력을 지킬 필요가 있다”고 말한 것으로 알려짐
 - 폴크스바겐의 대변인은 자신들이 기꺼이 공유하고자 하는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구글이나 애플이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하며, 자신들은 최고의 앱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고 해명
- 일부 자동차 업체들의 정보 공유 차단은 차량 내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가능한 큰 몫을 차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됨
 - 미국 컨설팅 기업 앨릭스파트너스(AlixPartners)의 추계에 따르면, 디지털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에 의해 창출되는 매출은 2013 년 160 억 달러에서 2018 년 400 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
 - 앨릭스파트너스는 자동차업체들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동차 관련 데이터에 애플과 구글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가능한 한 큰 몫을 확보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
 - 물론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의도 외에도 운전자들이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

*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(☎ 042-612-8296)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(soma0722@naver.com ☎ 02-739-630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.

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으며, 연방 및 주 당국이 자동차의 데이터 수집 및 공유에 대해 제약사항을 마련해 놓을 가능성도 있음

○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한 입장은 자동차 회사별로 다르며, 같은 회사에서도 영업 지역이나 브랜드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함

- 예를 들어, 도요타 자동차는 차량 내 통합 시스템 도입에 부정적이지만, 도요타의 북미 브랜드인 사이언(Scion)은 차량 통합 시스템에 기대를 걸고 있는 입장
- 포드는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와 모두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나, 자신들의 독자적인 차량내 시스템인 싱크(Sync)를 계속 발전시켜 현재 3.0 버전을 내놓고 있음

(Reuters, 7. 10. & Slash Gear, 7. 12.)